



태권도진흥재단 전 직원, 인권 강사 초빙 교육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한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김용구 강사를 초빙해 '직장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공유와 예방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용구 강사는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들도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위의를 고취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강의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인권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관련 임직원의 중요성 인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 자기혁신 성장캠프 성료

전주비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20일 '자기혁신 성장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참여자 전원에겐 전액 무료로 진행, 재학생들의 주도적인 대학 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인관계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인 주체로 운영됐다. 대학 봉사관 강의실에서 3분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캠프에는 총 8개 학과 72명이 과정을 마쳐 한국리더십센터그룹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증을 받았다. 이원희 학사지원처장(물리치료학과 교수)은 "학생들이 직업 현장에 나가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대인관계"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나눔행사 진행

남원시 금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시 농촌종합지원센터와 나눔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협의체 복지허브와 기금으로 '행복한 일' 달걀 32판 지원센터에서 '추석선물꾸러미' 20박스(25,000원 상당)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렸다. 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7일 미리 추석음식(전, 송편 등)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 20가구에 전달하였으며, 매월 월 2회 어울림 '사랑에찬' 반찬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지역복지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안민영 금지면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교육지원청, 나눔을 통한 따뜻한 온정 실현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는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기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하울과 아동 공동생활 가정인 코비그룹 2개 소이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에서는 세제, 화장지 등의 생활필수품과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구형 모니터 및 데스크톱을 기부하여 아이들과 장애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도록 온정을 나누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BNY Mellon 로빈 빈스 회장, 제4회 지니어워즈 수상

상금 1만달러 전액 기부... JA KOREA 통해 전북에 환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로빈 빈스(Robin Vinx) 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와 전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이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포럼인 '제4회 지니어워즈(GENIE Forum)'에서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니어워즈는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금융·경제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만달러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로빈 빈스 뉴욕멜론은행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한국과 전북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 뉴욕멜론은행은 2019년 국민연금공단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자회사인 BNY 멜론 자산운용그룹 전주사무소도 개소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지역 인재채용,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BNY Mellon 서울지점 견학 등 지역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취업활동 지원을 전개해왔다. 로빈 빈스 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한국은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서 BNY Mellon 그룹은 확고한 고객 기반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지 고객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1일 리한호텔에서 열린 제4회 지니어(GENIE)포럼 개막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로빈 빈스 회장에게 지니어워즈 시상. 대리수상자: 박현주 BNY Mellon 한국대표)을 하고 있다.

BNY Mellon 그룹은 아울러 상금 1만 달러(약 1,300만원) 전액을 JA KOREA에 기부하기로 했다. JA(Junior Achievement)는 국제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상금은 JA KOREA를 통해 전북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취업·경제금융·기업가정신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니어포럼 국제조직위원회를 대표해 시상자로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뉴욕멜론은행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김재훈 기자

진안 동향면 은빛문해 김광윤 님 '배움은 날개' 도의회의장상 수상

2023년 전국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개최한 사회전에서 진안군 동향면 은빛문해교실 김광윤(80세) 학생이 전라북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동향면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은빛문해교실에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느꼈던 기쁨과 다양한 사연을 시화로 표현한 작품으로 총 3편을 출품해서 수상의 영광까지 거뒀다. 수상자 김광윤씨는 "배움은 날개"라는 작품은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서러움과 문해교실을 통해 글을 깨우치며 겪게 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 진심이 담긴 소중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윤경 동향면장은 "성인문해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고 열정에 저절로 박수를 보내게 된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생활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광윤 님이 '배움은 날개' 도의회의장상 수상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최북미술관 in적상초등학교' 개최

무주군은 21일 적상초등학교 2층 학습정보실에서 '2023 찾아가는 최북미술관 in적상초등학교 나만의 최북 명화, 선 개채모빌 / 도어발에 달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관내 소규모학교 아이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25명의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들은 공립미술관인 최북미술관에 대해 알아보고 무주 출신 조선시대 화가 최북의 이야기와 그의 작품 세계를 학예사와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최북 명화 '배추라기' 등 명화를 담은 '선 개채 모빌'과 '아트 도어발'을 만들며 흥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우리와 같은 무주 사람이라고 해서 신기했다"라며 "또 옛날 그림을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시간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기



어린이들이 '배추라기'를 그려보고 있다. 최북미술관 인형극팀이 최북미술관 인형극을 소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기전대학, 전북 일자리페스티벌 참여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1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하는 2023년 전북도 일자리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도내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채용관 △채용설명관 △취업안내 토크콘서트 △명사 특강 △이벤트부스 등 다양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또한 포토투스, 면접시진 촬영 등 부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했다. 이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기전대학 재학생 등 태대와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지역 구직자 등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컨설팅, MBTI 검사·진단을 실시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 명절 맞아 교통안전 위한 홍보활동 집중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근)는 명절을 앞두고 교통안전을 위해 21일 정읍시 산내면 의 3개 농촌 지역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고품보행자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행사와 더불어,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함이다. 정읍경찰은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가 인쇄된 안전형 광조끼를 배부하며 무단횡단금지, 교통법규 준수,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 등을 당부하는 등 이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내 고품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시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점 등을 집중 홍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품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동충동, 추석맞이 김치 등 나눔

남원시 동충동은 남원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정옥)에서 지난 20일에 지역 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직접 만든 밀반찬과 김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김치 전달은 남원시 새마을부녀회원이 함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 나누는 행사로, 윤정옥 회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밀반찬과 김치를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돕기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문희 동충동장은 "겨울 김장김치가 소진되는 시기에 김치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부녀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농기센터, 여성농업인 가을 약선 요리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19일, 명품농업대학 여성농업인반 3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에 흘린 땀을 보충하고, 기운이 없는 몸을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한 가을 약선 요리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구기차호두인삼탕, 토란탕, 도라지무침, 붕두 부구이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4가지를 만들었으며, 특히 구기차호두인삼탕은 날이 추워지면 허리와 무릎 등 관절이 약해진 여성과 노인을 위한 최고의 음식으로 유명해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센터 고인배 소장은 "여름철 더위로 지친 피로감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품농업대학 여성농업인반 30명은 약선음식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앞으로 두 달동안 실습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 150만원 장학금 기탁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21일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에서 장학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시장 운영(총 10회)에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기탁식은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후 무주반딧불시장 원형무대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무주반딧불시장 상인회 박용식 회장은 "시장이 살아야 무주경제가 살아나듯 우리 어린 학생들이 꿈을 펼쳐야 무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뜻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인들 모두 무주에서 자식을 낳아 기를 부모니까 아이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다"라며 "그동안 주된 어려움에 맞서 사명감으로 무주교육을 위해 자신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공정읍지사,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하인호)는 21일 정읍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추석 명절맞이 기부금을 전달했다. 특히, 교통편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자살자이원(이하 자이원)에서는 전북은행 정읍지원(지점장 송기택)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동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자이원은 약 90여명의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보호, 재활, 교육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생활능력향상과 사회 적응을 통해 자립의기조성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하인호 지사장은 "조그만 정성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